

Contents



통계로 보는 국제물류

- 작년 미국 선도물류기업, XPO Logistics·UPS·DHL 순



이슈페이퍼

- 올 1/4분기 로테르담항 화물 처리량 작년 동기 대비 5.1% 증가



물류정책·산업동향

1. 올 3월 중국 항만 '컨' 물동량, 전년비 9.5% 증가한 2,153만TEU
2. 쉘과 토요타, 수소 연료전지 사용 항만용 트럭 첫 생산

명사 스피치

“한국선급은 최근 연구본부를 신설하고 수소선박 기술에 대한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... 수소 선박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우리나라가 조선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

이정기 한국선급 회장
(2019. 4. 16.)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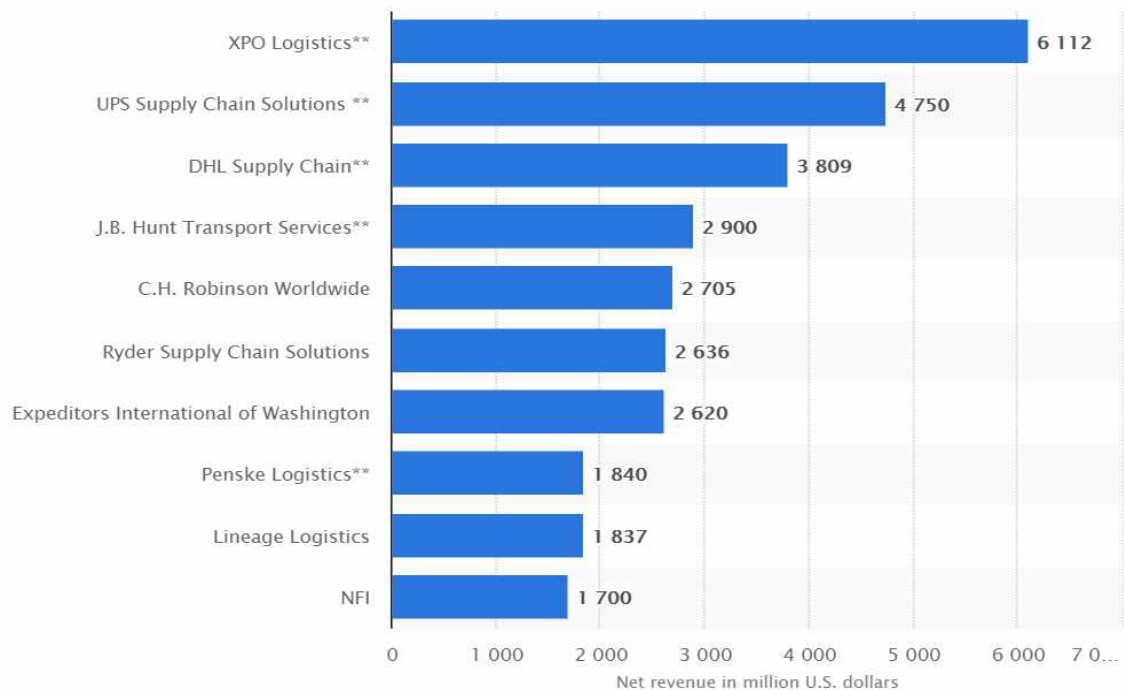
통계로 보는 국제물류

작년 미국 선도물류기업, XPO Logistics·UPS·DHL 순

- 2018년 북미지역 매출액 기준 미국 주요 물류기업의 순위가 XPO Logistics, UPS Supply Chain Solutions, DHL Supply Chain 등으로 나타남
 - 1위 기업인 XPO Logistics는 2018년 61억 달러 이상의 순매출을 기록했으며 UPS 47억 달러, DHL 38억 달러 수준임
 - 상대적으로 Penske Logistics, Lineage Logistics, NFI 등의 순위는 낮게 집계됨
- UPS Supply Chain Solutions는 2016년에도 선도물류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임
 - 2016년에 UPS는 Philips Healthcare, Pratt Whitney 및 Triumph Motorcycles 등의 대형 고객을 기반으로 북미에서 31억 달러가 넘는 매출을 달성함
 - 2017년에는 트럭 운전자, 조종사, 승무원, 기계공, 사무원 및 관리자 등 45만 4천명의 고용을 유발함

2018년 미국 주요 물류기업(북미지역 순 매출액 기준)

단위: 백만 달러



자료 : www.statista.com

■ 참고자료 : www.statista.com, 2019.4.23.

조지성 전문연구원

051-797-4916, jisungjo@kmi.re.kr



이슈페이퍼

올 1/4분기 로테르담항 화물 처리량 작년 동기 대비 5.1% 증가

- 금년 1/4분기 로테르담항의 화물 처리량이 작년 동기대비 5.1% 증가함
 - 물동량 증가 주요 요인으로 컨테이너 및 액체 화물 등의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, 석유화학제품, 철광석 및 고철 등의 품목은 감소함
- 로테르담항 CEO에 따르면 “이번 기록적인 1/4분기 처리량은 로테르담항이 컨테이너 및 LNG의 운송 허브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”이라고 언급함
- 또한 로테르담항은 기후 변화, 디지털화 및 자동화 같은 시대적 변화에 대처해 고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만의 스마트 혁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

로테르담항

자료 : www.porttechnology.org

- 건화물 부문
 - 철광석, 고철 및 석탄이 주요 품목인 건화물 부문에서는 독일의 철강 생산량이 5% 감소해 철광석 및 고철의 처리량은 약 585만톤으로 17.9% 감소했지만 석탄 처리량은 15.7% 증가해 749만톤을 기록함
 - 또한 양곡 처리량은 264만톤을 기록했으며 이밖에 기타 건화물 처리량은 37.9% 증가한 346만톤을 기록하며 총 건화물 처리량은 3.7% 증가한 약 1,944만톤을 기록함

● 액체 화물 부문

- 액체 화물 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미국산 원유의 공급증가로 인해 10.4% 증가한 280만톤을 기록함
- 석유화학제품의 물동량은 러시아와 아시아 간 연료유 교역 감소로 작년 동기대비 7.4% 감소한 2,108만톤을 기록했으며 액화천연가스는 작년 동기 대비 143.4% 증가한 176만톤을 처리했는데 이는 로테르담항이 중요한 LNG 허브로서 자리매김한 것을 확인해 주는 것임

● 컨테이너 부문

- 컨테이너 화물 처리량은 아시아발 환적 물동량이 크게 증가해 전년 동기대비 5.9% 증가한 3,803만톤을 처리함
-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는 피더션 물동량이 15.1% 증가한 730만톤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됨
- 또한 아시아~유럽 간 무역 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공 컨테이너 처리량이 크게 증가했음

● 로로 및 기타 화물 부문

- 로로 및 기타 화물의 경우 로로 화물이 작년 동기 대비 10.7증가한 641만톤을 기록했으며 기타 화물 부문은 3.1% 증가한 147만톤을 기록하며 총 788만톤에 달했음

2018~2019년 로테르담항 1분기 물동량

(단위 : 백만 톤)

	2018 1/4분기	2019 1/4분기	작년 동기 대비 증감율(%)
철광석, 고철류	7.127	5.854	-17.9
석탄	6.473	7.490	15.7
양곡	2.649	2.641	-0.3
기타 건화물	2.509	3.461	37.9
건화물 소계	18.758	19.446	3.7
원유	25.418	28.054	10.4
석유화학제품	22.775	21.081	-7.4
액화천연가스	726	1.766	143.4
기타 액체 화물	7.006	7.604	8.5
액체화물 소계	55.925	58.506	4.6
컨테이너	35.928	38.035	5.9
로로	5.789	6.410	10.7
기타 화물	1.428	1.473	3.1
로로 및 기타 화물 소계	7.217	7.883	9.2
총계	117.828	123.870	5.1

자료 : Port of Rotterdam

■ 참고자료 : www.portofrotterdam.com, 2019.4.18.

김병주 연구원

051-797-4784, bjkim17@kmi.re.kr



물류정책·산업동향

올 3월 중국 항만 '컨' 물동량, 전년비 9.5% 증가한 2,153만 TEU

- 올 3월 중국 전체 항만이 처리한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 동월 대비 9.5% 증가한 2,153만 TEU를 기록(중국 교통운수부 집계 결과)
 - 임해 항만이 전년 동월 대비 9% 증가한 1,910만TEU, 내륙 하천 항만이 동 대비 15% 증가한 242만 TEU를 처리
 - 한편 3월의 외국무역 물동량은 전년 동월 대비 6% 증가한 3억 5,613만톤을 기록했으며, 그 중 임해 항만이 동 대비 5% 증가한 3억 1,792만톤, 내륙 하천 항만이 동 대비 9% 증가한 3,821만톤으로 집계됨
- 항만별 컨테이너 물동량을 살펴보면 1위 상하이항이 전년 동월 대비 13% 증가한 381만TEU, 2위 Ningbo항이 동 대비 3% 증가한 215만TEU, 3위 선전항이 동 대비 14% 증가한 205만 TEU 순
 - 올해는 구정(춘절) 휴무가 2월 초순인 관계로 3월의 물동량 실적에 영향이 거의 없음
 - 4위 광저우항은 전년 동월 대비 14% 증가한 199만TEU, 5위 칭다오항은 동 대비 9.5% 증가한 172만TEU를 기록함
 - 그 외의 항만 실적을 살펴보면 6위 톈진항 141만TEU, 7위 샤먼항 99만TEU, 8위 다롄항 71만TEU, 9위 잉커우항 43만TEU, 10위 렌윈강항 41만TEU임
 - 다롄항과 잉커우항은 물동량 증가율이 2자리수 감소 추세로 고전했으나, 그 외 8개 항만은 모두 증가 추세를 보임
- 1~3월 기간 중 중국 전체 항만이 처리한 컨테이너 물동량 누계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6% 증가한 6,033만TEU를 기록
 - 항만별로는 1위 상하이항 1,041만TEU(전년 동기 대비 7% 증가), 2위 Ningbo항 670만TEU(동 대비 3% 증가), 3위 선전항 605만TEU(동 대비 1% 증가) 순

■ 참고자료 : secure.marinavi.com, 2019.4.23.

한성일 부연구위원

051-797-4781, han@kmi.re.kr

켄월스와 토요타, 수소 연료전지 사용 항만용 트럭 첫 생산

- 토요타(Toyota Motor)사와 켄월스(Kenworth Truck)사는 수소 연료전지 사용 항만용 대형 트럭을 공동으로 개발하였으며, 2019년 4분기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임
 - 본 프로젝트는 캘리포니아 기후 투자(California Climate Investment)의 일환으로 탄소배출권 판매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감축 차원에서 추진함
 - 새롭게 생산된 트럭은 토요타사, 켄월스사, 로얄 더치 쉘사(Royal Dutch Shell)가 공동으로 마련한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(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)의 보조금 4,100만 달러로 최초 10대를 생산할 예정임
 - 토요타사는 캘리포니아주 LA항과 LB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기존 토요타의 “미라이(Mirai) 자동차”를 위해 설계된 연료전지 2개를 개조하여 기존 트럭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트럭을 개발함
 - 생산된 10대의 트럭은 Toyota Logistics Service(4대), United Parcel Service(UPS, 3대), Total Transportation Services Inc.(2대), Southern Counties Express(1대)가 운영할 예정임
- 수소 연료전지 트럭은 이산화탄소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으로 LA항과 LB항의 대기질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함
 - LA항과 LB항은 북아메리카 내 컨테이너 화물의 최대 교역 관문으로 미국행 화물의 20%를 취급하고 있으며, 항만을 출입하는 트럭(1일 평균 약 16,000대)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는 인근지역 사회의 대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짐
 - 토요타가 개발한 수소 연료전지 트럭을 14,000마일 이상 시범 운행한 결과 유일한 배출물질은 수증기였으며, 정상적인 운행조건 하에서 1회 완전충전 시 최대 300마일(약 480km) 이상 주행할 수 있어 항만 및 인근지역의 오염도를 줄이고 대기질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함
 - 캘리포니아주 역시 2035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를 목표로 수소충전 인프라 확장을 위해 쉘사와의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함

■ 참고자료 : www.trucks.com, 2019.4.22.

이기열 부연구위원

051-797-4670, kylee@kmi.re.kr